



우치동물원 스타 기린 '아린'

우치동물원 스타 기린 '아린' 꽃 피는 춘삼월에 시집 간다

‘저 꽃피는 봄에 시집가요.’ 광주우치동물원의 ‘천상 여자’ 알컷 기린 ‘아린’이 오는 3월 연하의 새 남편 기린을 맞는다. 지난 2011년 남편과 딸을 잇따라 떠나보낸 지 4년 만에 새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다.

4일 광주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께 용인 에버랜드로부터 수컷 그물 무늬 기린 ‘아토’를 2억원에 구입했다.

아토는 지난 2013년 4월 에버랜드에서 아빠 기린 ‘세븐’과 엄마 기린 ‘천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4살이 됐다. 아토는 태어날 당시 에버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일지가 소개되면서 큰 인기를 얻은 기린이다. ‘아토’라는 이름도 팬들이 SNS를 통해 ‘아름답고 토실토실하게 자라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우치동물원은 3월 중에 ‘아토’ 이상 작전을 펼 계획이다. 우치동물원은 겨울철

남편·딸 잃고 4년 독수공방 에버랜드서 수컷 2억에 구입 다음달 광주 이승 신방 차려

추운 날씨에 아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해 그동안 이승을 미뤘으며, 다음달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장 좋은 날을 받아 이승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이승 전에 1주일 정도 사육사를 에버랜드에 파견해 건강 상태와 성격 등을 관찰할 예정이다.

아토는 현재 키 3.5m, 몸무게 1t 가량이며, 아린(14세·키 4m, 몸무게 1.5t) 등 다른 기린과 달리 전체적으로 하얀 빛깔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남 우치동물원 소장은 “아토는 불안심이 없고, 얼굴에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어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다”며 “그동안 쓸쓸하게 사육사를 혼자 지키던 아린에게 새 짝을 구해 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치동물원 최고 스타인 ‘아린’은 ‘아름다운 기린’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모를 슬픈 사연이 있다.

‘아린’은 지난 2010년 3월 남편인 수컷 ‘밀레리’(당시 11살) 사이에서 알컷 새끼를 출산한 뒤 회복한 가정을 이뤘다. 하지만 2011년 남편과 딸을 연이어서 떠나보낸 뒤 50개월가량 혼자서 쓸쓸하게 사육사를 지켜왔다. 당시 부검을 통해 밀레리의 위 속에서 관람객들이 준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봉지와 노끈 등이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2014년부터 ‘아린’에게 새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왔다. 하지만 해외 동물 구입 절차



3월에 광주로 오는 수컷 '아토'

등이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기린 가격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까지 ‘아린’과 ‘아토’ 사이에서 2세가 태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치동물원도 번식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많은 ‘아린’이의 건강을 염려해서다.

김 소장은 “돌이 잘 살아주기만 하면 좋겠다”며 “아린이 20살 이상까지만 동물원을 지켜주고, 아토가 내년에 성체(性)으로 더 성숙해지면 꼭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동물원에 사는 기린의 평균 수명은 20년으로, 국내 최장수 기린은 에버랜드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장순이’다.

한편 우치동물원은 설 연휴기간(7~10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도 정상 개방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18 기념재단 대학생 자원활동가 모집

5·18기념재단은 올 한해 재단사업에 함께 할 대학생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에 애정을 가진 광주·전남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념재단은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 지원자 가운데 100여 명을 예비 자원활동가로 선발한다. 기념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본 소양교육을 한 뒤 70명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5·18 자원활동가들은 올 4월부터 국내외 민주·인권단체와 함께 국제교류 사업을 비롯한 국내 교육문화사업, 진실조사사업 등을 한다. 올 해 동안 활동 성적이 우수한 자원활동가들에게 5·18기념재단의 국제인턴 지원이 가산점이 부여되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부여된다.

신청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62-360-0511.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최고 먹보는 코끼리...두마리 섭취량 하루 200kg

우치동물원 대식가 보니 2위 기린·3위는 하마

새해 초면 광주우치동물원에서 연례행사처럼 서두르는 일 중 하나가 먹이 구입이다. 연간 먹이 구입 예산은 4억3000만원으로, 무게만도 연간 200t에 달한다. 우치동물원은 매일 닭고기, 미꾸라지, 과일 등 41종 584kg의 신선한 먹이를 공급받아 129종 780마리의 동물들에게 공급한다. 우치동물원 동물들은 주로 어떤 먹이를 먹을까.

‘최고 먹보’는 동물원에서도 가장 큰 덩치와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코끼리 ‘봉’(2.5t)과 ‘우리’(2t)다. 두 마리의 코끼리는 하루 평균 200kg을 먹는데 전체 동물 먹이의 30%에 달한다. 코끼리는 하루 평균 자기 몸무게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먹이를 먹는 ‘배고픈 동물’로 사과, 당근, 양배추, 상추 등

제철 과일과 채소를 비롯해 수입산 건조 알팔파와 티모시가 주식이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동물은 기린 ‘아린’으로, 전체 먹이의 20%를 차지한다. 우치동물원은 야채와 과일 등 기린 먹이에 다소 매운 양파를 섞어서 먹인다. 선천적으로 삼삼이 약하고, 고열압이 있는 기린을 위한 건강 식품으로 양파를 택한 것이다. 세번째는 하마다.

1kg당 단가가 가장 비싼 먹이는 미꾸라지다. 펠리컨과 홍부리황새 등 물새들이 먹는다. 과일을 좋아하는 침팬지 ‘편지’는 매일 비피더스요구르트 하나씩을 먹는데, 소화불량에 자주 시달리는 ‘편지’를 위한 특식이다.

대부분의 동물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먹이는 바로 관람객들이 던져주는 과자다. 하지만 충치나 성인병을 유발해 우치동물원의 고민이 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설날 방앗간은 사랑방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둔 4일 광주시 남구 월성동 학촌마을 주민들이 방앗간 난로 앞에 모여 앉아 가래떡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대, 미화업무 비정규직에 뜻깊은 설 선물

180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전남대가 교내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 고용(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180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비정규직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감을 달아주는 계기가 됐다. 전남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는 4일 지병문 총장과 조용근 민주노총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박남덕 한국노총 전남대용역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캠퍼스 140명, 여수캠퍼스 40명 등 180명의 미화요원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여수캠퍼스 근로자는 4월 1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병문 총장은 “그동안 간접 고용 형태로 근무했던 직원들의 불안한 고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원 징계 형평성 논란

‘막말’ 교감 해임...교장·교감 폭행한 교사 정직과 대조

광주교육청의 교원 징계 방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위원회가 가해 경우·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안별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가 하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중학교 교감 B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의 경우 교사들이 실

수를 하면 “그런 것도 못하면 교사를 그만 두어야지”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 교사들은 교관보호지원센터에 진정서를 내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사팀의 중징계 요구를 반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감은 교원소정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청 안팎에서는 지난 2014년

교장·교감을 폭행하고 교내 카드놀이를 해 물의를 빚은 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교육청은 “교단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교육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는 만큼 징계 수위를 놓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만취 30대 6중 추돌사고

만취 3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

지난 3일 밤 10시경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임방울대로의 한 교차로에서 채모(37)씨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장모(여·48)씨의 모닝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총격으로 밀러난 모닝 승용차는 주변에 멈춰 서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히면서 모두 6중 추돌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장씨 등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채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9 / 해질 18:04 / 달출 04:17 / 달몰 14:50

큰 추위 없어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6	보성	구름많음	-3/4
목포	구름많음	-1/5	순천	구름많음	-1/6
여수	구름많음	1/5	영광	구름많음	-5/5
나주	구름많음	-5/6	진도	구름많음	-2/5
완도	구름많음	0/6	전주	구름많음	-4/4
구례	구름많음	-4/5	군산	구름많음	-4/2
강진	구름많음	-2/6	남원	구름많음	-5/3
해남	구름많음	-4/5	홍산도	구름많음	2/5
장성	구름많음	-5/5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오후
서해남부	암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암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5~3.0
남해남부	암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45	04:32
	23:43	17:38
여수	밀물	썰물
	07:20	00:15
	19:06	13:27

◇ 생활지수

관심	체감온도
낮음	동파
높음	뇌졸중

◇ 주간 날씨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	☀	☀	☀	☀	☁	☁
-4/2	-4/5	-2/7	-1/9	0/10	3/12	6/9

‘사전선거 의혹’ 총선 입지자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산악회를 결성한 뒤 수차례 ‘산악 관광’을 한 의혹(사전선거운동)을 받고 있는 광주 남구의 총선 입후보 예정자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남구의 총선 입후보 예정자 K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또 K씨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시·구의원 등 관련자 사무실과 차량 등 7곳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사전선거 운동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품을 분석하고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K씨 등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K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대와 시간 등이 포함된 관광행사를 열어 주민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지와 공약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말 K씨와 전직 시·구의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주회 측이 빌린 버스에 40명씩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죽·도시락·화·간식 등 항공과 수건 등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식비·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유두석 장성군수 벌금 8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유두석 장성군수가 ‘법정 행운’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결과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유두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법률심리를 통해 유·무죄만 가리는데다,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사형·무기징역·징역10년 이상의 중형만 담

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두석의 경우 벌금 판단으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가려졌고, 양형은 벌금형이어서 양형 부당성이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상고 포기 유두석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호별방문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려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을 넘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액을 합산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선례나 규정이 없다”며 병합처리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두석 사건과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화하는 법안 검토의 선거법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괴리가 있다며 벌금을 병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인 아내 성추행 이경실씨 남편 실형

○~10여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구우면 이경실씨의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운전기가 몰던 차량 안에서 지인의 아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재판부는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되려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